



글로벌 자본시장 동향

2024년 1월1호

이슈 분석

암호화 화폐시장에서 정규거래소의 사업 현황
강태훈 부연구위원

주요 기사 리스트



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

부연구위원
강태훈

암호화 화폐시장에서 정규거래소의 사업 현황

- ◆ 세계거래소연맹(World Federation of Exchanges, WFE)의 서베이 연구 등을 참고하여, 암호화화폐 시장에서 정규거래소의 사업현황을 공급, 수요, 위험, 기회, 이점, 도전, 사례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봄
- ◆ **[공급 현황]** WFE 설문에 응답한 정규거래소*의 41%는 현재 암호화화폐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이며, 14%는 향후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
 - *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(2023.8), “A Review of Crypto-trading Infrastructure”, 29개 거래소 중 55%는 EMEA 지역, 24%는 미국, 21%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분포
- 정규거래소가 가장 많이 제공 중인 카테고리*는 파생상품, 증권토큰, 지수이지만, 이외 다른 상품 및 서비스도 정규거래소의 참여 및 관심의 정도가 높음
 - * 정규거래소의 암호화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크게 증권토큰(security tokens), 암호화화폐 관련 지수(indexes on crypto-related products), 수탁서비스(custody services), 스테이블코인(stablecoins), 암호화자산 파생상품(derivatives on crypto-assets), ETNs, ETFs, 대체불가능토큰(non-fungible tokens), non financial tokens 등으로 구분
- 정규거래소가 새로운 암호화자산 거래소나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설립 중이라고 응답한 거래소는 21%이며, 내부적으로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설립을 논의 중이라고 응답한 거래소도 21%임
 - * 향후 5년 이내에 탈중앙화 암호화자산 거래소(Decentralized crypto Exchange), p2p 암호화자산 거래소, 하이브리드 거래소(Hybrid Exchange), 암호화자산 파생상품거래소(Crypto Derivative Exchange)를 설립할 계획인 정규거래소는 없음
- ◆ **[수요 현황]** 기관 및 소매투자자의 수요는 정규거래소가 제공 중인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
 - 소매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는 대체불가능토큰(NFTs), non financial tokens(예: utility tokens), 스테이블코인임
 - 이에 비해, 기관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대체불가능토큰(NFTs), 증권토큰, 수탁서비스임

- ◆ **[위험요인]**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사이버보안(cybersecurity), 시장변동성(market volatility), 영업위험(operational risk), 시장조작(market manipulation) 순으로 조사됨
 - 이외에도 관련 상품의 청산능력 부족(ability to clear), 비용 대비 낮은 수익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(loss of revenue) 등이 위험요인으로 언급됨
- ◆ **[기대효과]**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기대하는 이점으로는 기술진보(technological advancement), 새로운 수익원 발굴(new sources of revenue), 기술리더십(technological leadership) 순으로 조사됨
 - 이외에도 청산결제 개선(more efficient clearing and settlement), 공시 및 투명성 개선(improved disclosure/greater transparency), 투자자의 선택범위 확장, 신규고객 유인, 발행자의 신규 펀딩 경로 등이 이점으로 언급됨
- ◆ **[도전요인]**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직면하는 도전으로는 규제(regulation), 평판(reputation), 시장인프라(market infrastructure conditions) 순으로 조사됨
 - 이외 기술 및 수요부족, industry readiness, 교육 및 custody solutions 부족, 투자자보호 등이 도전 요인으로 언급됨
- ◆ **[사업화 사례]** 대체로 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설립, 인수 등을 통해 디지털거래소를 운영하면서, 우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 중
 - (스위스거래소) 자회사 SIX Digital Exchange(SDX)는 ‘22년 SDX Web3 서비스*를 출범했고, ‘22년에 조인트벤처사인 디지털자산거래소 AsiaNext를 싱가포르에 설립
 - *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및 셀프스테이킹(self custodial staking) 서비스를 제공
 - (시카고옵션거래소) ‘22.5월에 Eris Digital Holdings, LLC(ErisX)를 인수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 후 데이터, 지수, 파생상품 등으로 영역 확대를 시도 중
 - (일본거래소) ‘25.4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토큰을 거래하는 디지털증권 시장을 출범하는 중기전략을 발표했고, ‘25년 이전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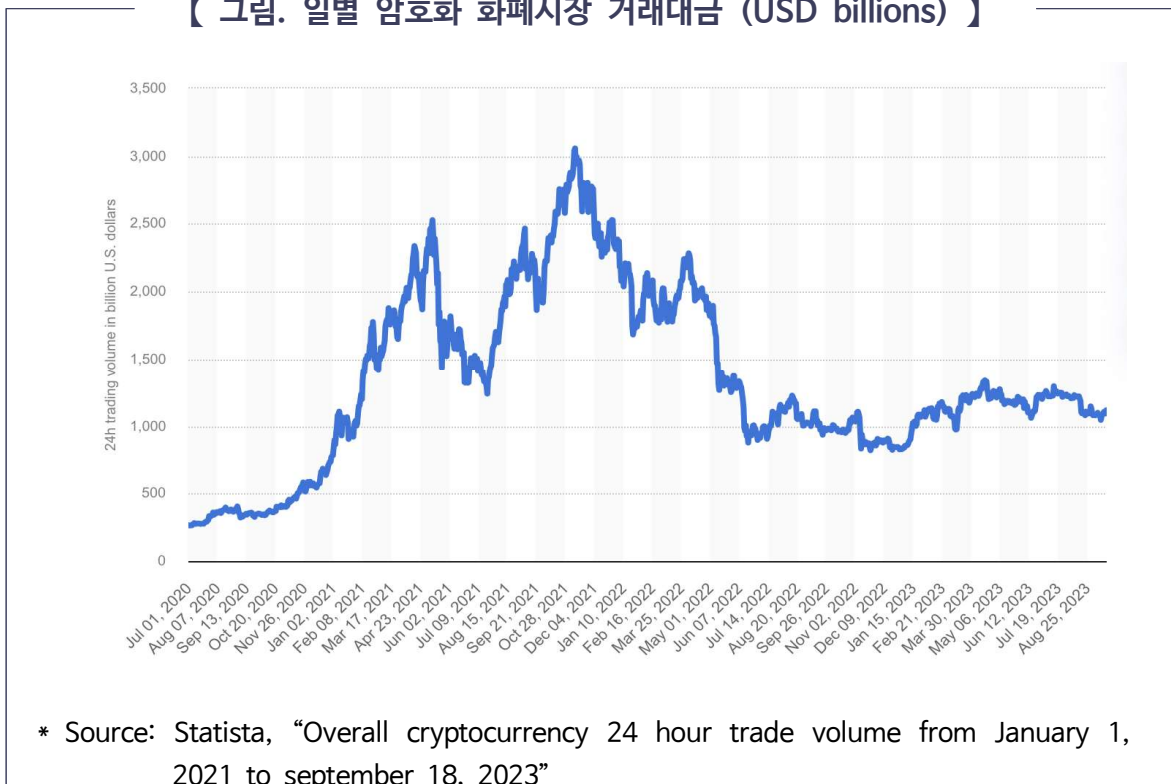
■ **[암호화 화폐 거래(플랫폼) 현황]** CoinMarketCap에 따르면 일정한 거래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되면서 가격발견기능*을 가지는 암호화화폐 거래플랫폼은 대략 739개 이상임**

* 거래는 상위 소수의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으므로, 유동성이 낮아 가격발견기능을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는 플랫폼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

** 증권 및 현금토큰의 결제플랫폼, 암호화화폐로 NFTs 등의 디지털자산을 구입하는 플랫폼, 지분증명에 암호화화폐를 위임하여 수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스테이킹플랫폼 등은 제외된 것으로 추측

- Spot Exchange로 분류되는 플랫폼은 227개, Derivatives Exchange로 분류되는 플랫폼은 68개, Dex(Decentralized permissionless platforms)는 444개임
- 거래대금(USD billions)은 루나사태, FTX 파산, Binance와 Coins가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는 등의 일련의 부정적 사건과 거시경제환경 및 투자심리 변화 등으로 인해 '22년말 고점 대비 약 1/3로 감소하여 일별 약 1조 달러 근처를 유지 중

【 그림. 일별 암호화 화폐시장 거래대금 (USD billions)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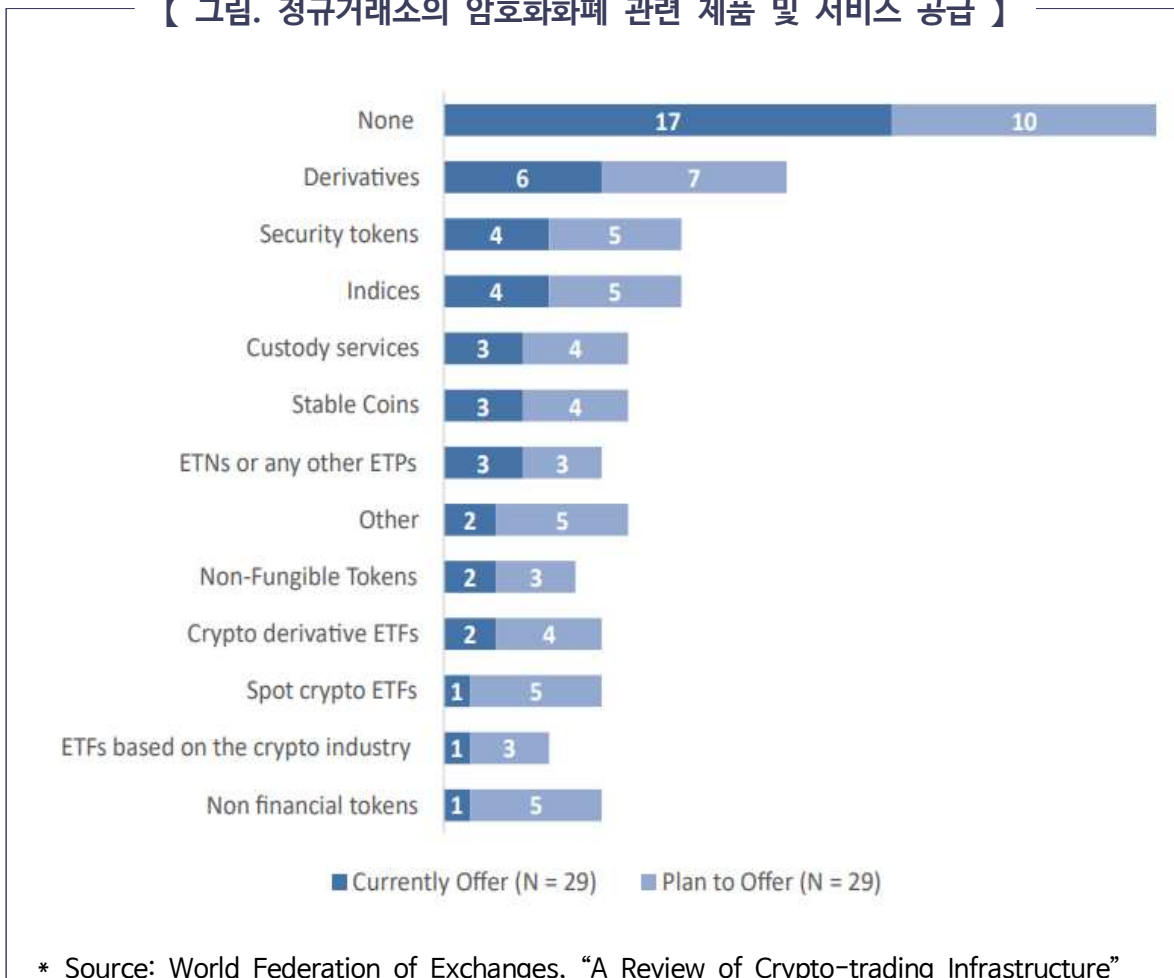


■ **[정규거래소의 공급 현황]** WFE가 실시한 서베이*에 의하면, 응답한 29개 정규거래소 중 12개 거래소가 현재 암호화화폐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이며, 7개 거래소는 향후 암호화화폐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가짐

* World Federation of Exchanges, "A Review of Crypto-trading Infrastructure(2023.8)", 29개 거래소 중 55%는 EMEA 지역, 24%는 미국, 21%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분포

- 암호화화폐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중인 12개 정규거래소 중 3개 거래소는 상장된 암호화화폐 상품을 결제하는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암호화화폐를 이용 중임
- 정규거래소의 암호화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는 크게 증권토큰(security tokens), 암호화화폐 관련 지수(indexes on crypto-related products), 수탁서비스(custody services), 스테이블코인(stablecoins), 암호화자산 파생상품(derivatives on crypto-assets), ETNs, ETFs, 대체불가능토큰(non-fungible tokens), non financial tokens 등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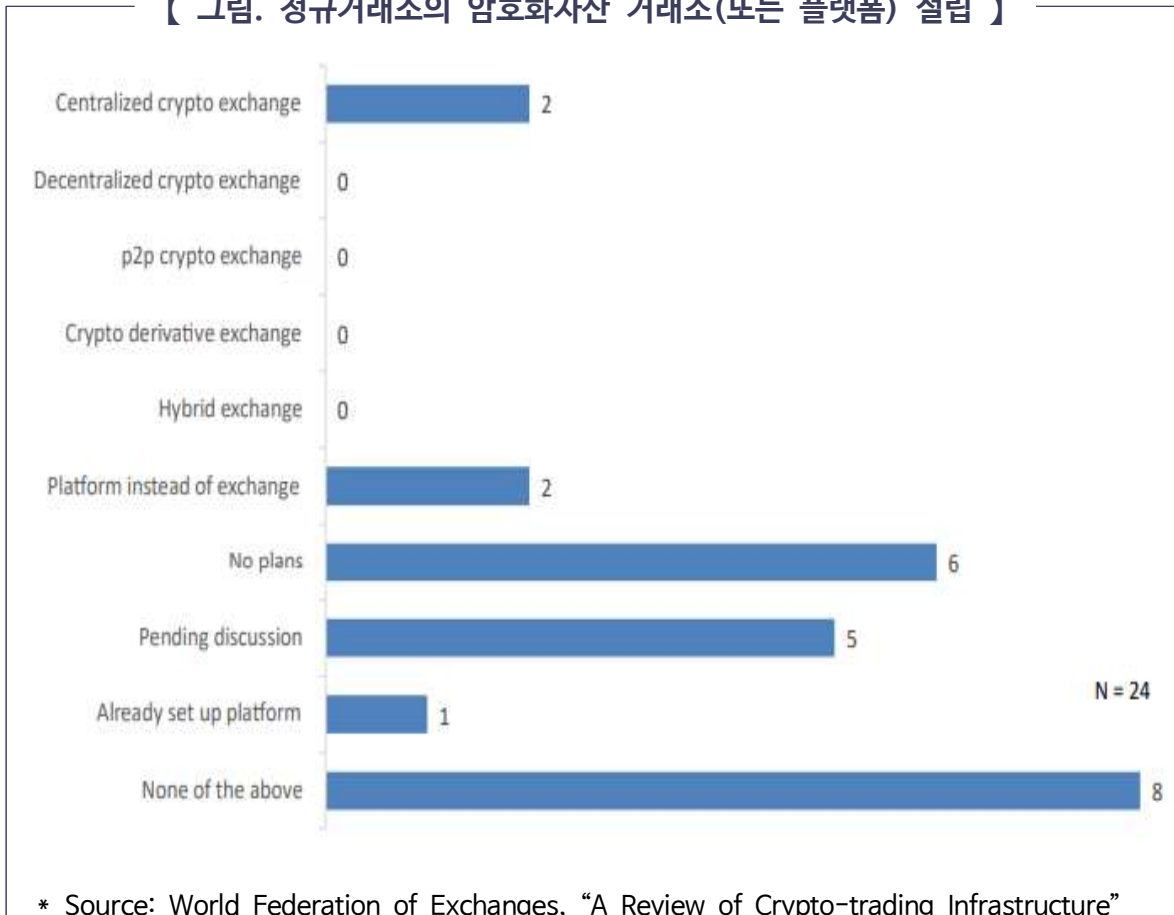
【 그림. 정규거래소의 암호화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공급 】



- 정규거래소가 가장 많이 제공 중인 카테고리는 파생상품, 증권토큰, 지수이지만, 이외 다른 상품 및 서비스도 정규거래소의 참여 및 관심의 정도가 유사함
- 또한 11개의 정규거래소는 현재 암호화자산 및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문 워킹그룹을 운영하거나 관련된 책자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(또는 계획) 중임

- 한편 정규거래소가 새로운 암호화자산 거래소 또는 플랫폼을 설립했거나 설립 중이라고 응답한 거래소는 21%(5개)이며, 내부적으로 암호화자산 거래소의 설립을 논의 중이라고 응답한 거래소도 5개임
- 향후 5년 내에 탈중앙화 암호화자산 거래소(Decentralized crypto Exchange), p2p 암호화 자산거래소, 하이브리드거래소(Hybrid Exchange), 암호화자산 파생상품거래소(Crypto Derivative Exchange)를 설립할 계획인 정규거래소는 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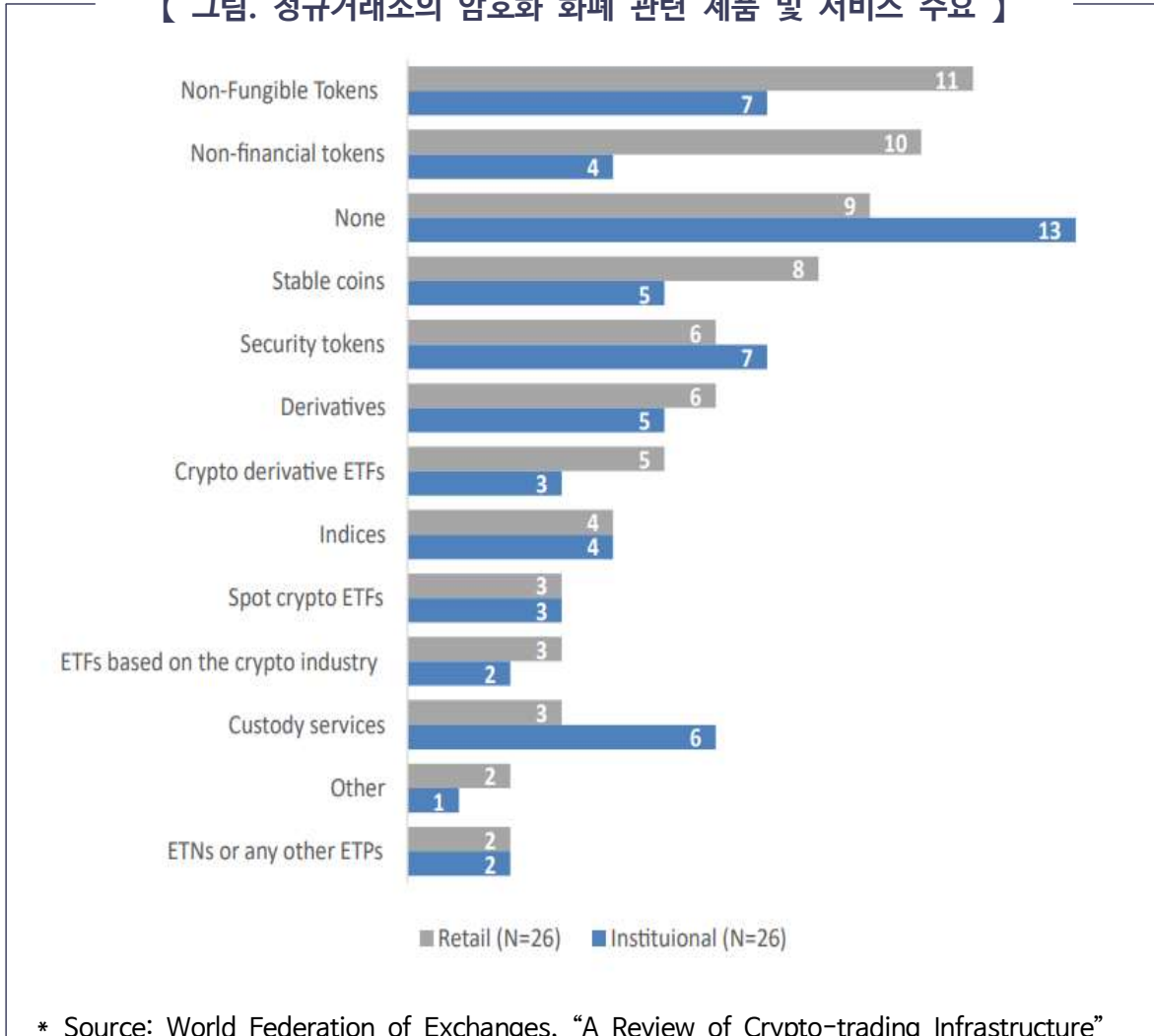
【 그림. 정규거래소의 암호화자산 거래소(또는 플랫폼) 설립 】



- **[정규거래소의 수요 현황]** 기관 및 소매투자자의 수요는 정규거래소가 제공 중인 상품 및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임
 - 소매투자자의 수요는 증권토큰과 수탁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카테고리에 대해 기관투자자보다 더 높음
 - 소매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카테고리는 대체불가능토큰(NFTs), non financial tokens(예: utility tokens), 스테이블코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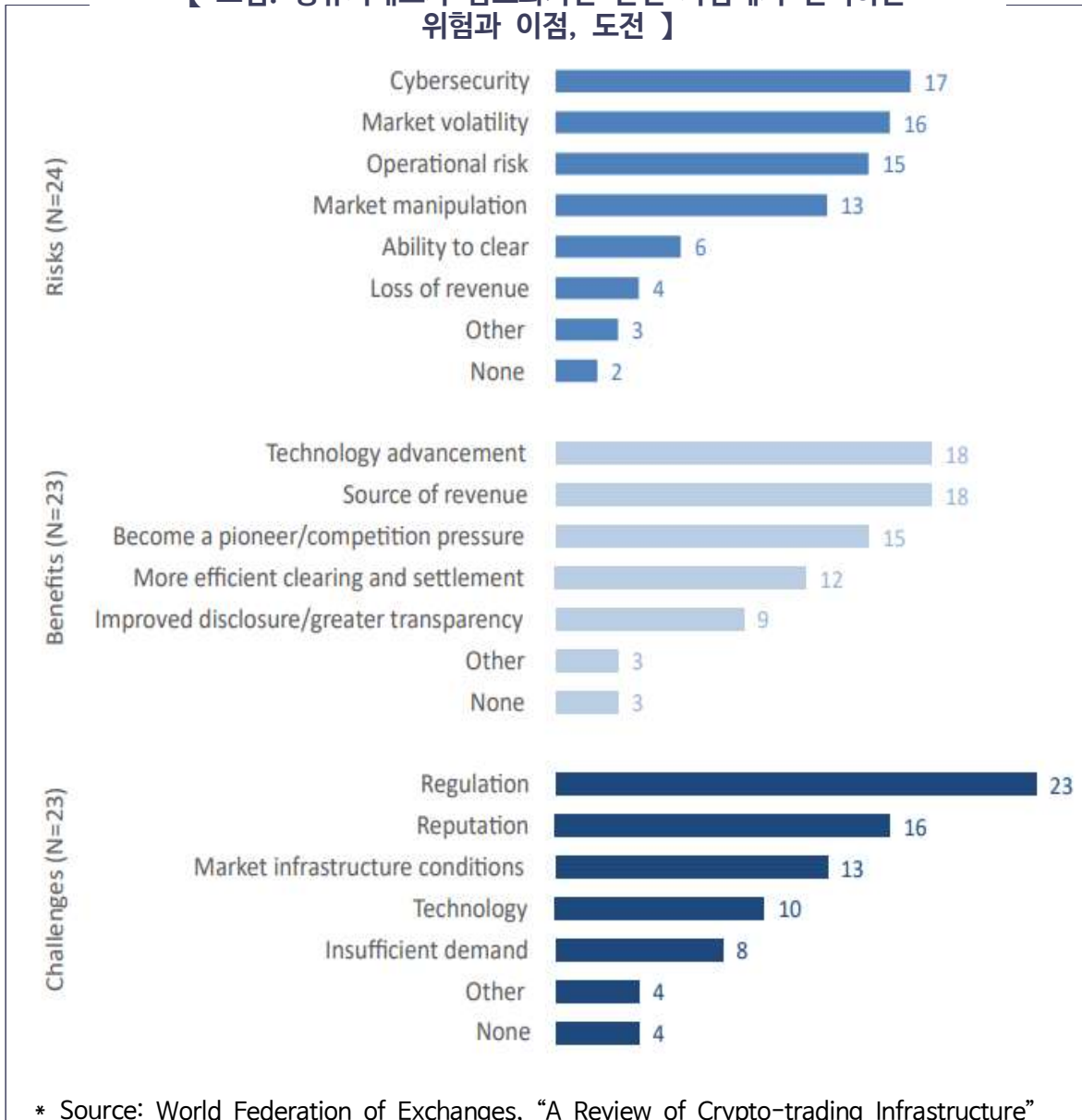
- 이에 비해, 기관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상품 및 서비스는 대체불가능토큰(NFTs), 증권토큰, 수탁서비스임

【 그림. 정규거래소의 암호화 화폐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】



- **[정규거래소의 위험요인]**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인은 사이버보안(cybersecurity), 시장변동성(market volatility), 영업위험(operational risk), 시장조작(market manipulation) 순으로 조사됨
- 응답 거래소의 약 33%가 사이버보안(cybersecurity), 시장변동성(market volatility), 영업위험(operational risk)을 동시에 위험요인으로 선택
- 이외에도 관련 상품의 청산능력 부족(ability to clear), 비용 대비 낮은 수익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(loss of revenue) 등이 위험요인으로 언급됨

【 그림. 정규거래소가 암호화자산 관련 사업에서 인식하는 위험과 이점, 도전 】



- **[정규거래소의 기대효과]**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기대하는 이점으로는 기술진보(technological advancement), 새로운 수익원천의 발굴(new sources of revenue), 기술리더십(technological leadership) 순으로 조사됨
- 응답 거래소의 약 26%가 기술진보(technological advancement), 새로운 수익원천 발굴(new sources of revenue), 기술리더십(technological leadership)을 동시에 기회요인으로 선택
- 이외에도 청산결제 개선(more efficient clearing and settlement), 공시 및 투명성 개선(improved disclosure/greater transparency), 투자자의 선택범위 확장, 신규고객 유인, 발행자의 신규 펀딩 경로 등이 이점으로 언급됨

- **[정규거래소의 도전]**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사업에서 직면하는 도전으로는 규제(regulation), 평판(reputation), 시장인프라(market infrastructure conditions) 순으로 조사됨
 - 응답 거래소의 약 26%가 규제(regulation), 평판(reputation), 시장인프라(market infrastructure conditions)를 동시에 도전요인으로 선택
 - 이외에도 기술(technology) 및 수요부족(insufficient demand), industry readiness, 교육(market education), custody solutions 부족, 투자자보호(investor protection) 등이 도전요인으로 언급됨
 - 주목할 점은 모든 거래소가 규제(regulation)를 정규거래소가 암호화화폐 사업에서 직면하는 도전요인으로 선택
 - 시간이 지날수록 암호화화폐와 관련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,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'18년 대비 규제를 가진 규제권역(jurisdiction)의 수가 '22년에 크게 증가함
 - * 미의회법률도서관(U.S. Law Library of Congress) 및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보고서
 - '18년에 암호화화폐에 대한 absolute ban을 적용 중인 규제권역은 8개이며, implicit ban*을 적용 중인 관할권역은 15개였지만,
 - * 은행과 금융기관이 암호화화폐를 거래하거나 거래소를 설립하거나 개인 및 기관고객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
 - '22년에는 암호화화폐에 대한 absolute ban을 적용 중인 규제권역은 10개이며, implicit ban을 적용 중인 규제권역은 42개로 크게 증가

【 그림. 암호화 화폐에 대한 국가별 규제 현황 】



- **[정규거래소 사업화 사례]** 대체로 자회사 및 조인트벤처 설립, 인수 등을 통해 디지털거래소를 운영하면서, 우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확대 중
 - (SIS) 스위스거래소(Swiss Exchange, SIX)의 자회사 SIX Digital Exchange(SDX)는 ‘21.9월에 스위스금융시장감독청(Swiss 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)으로부터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한 거래와 청산, 담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승인을 획득*
 - * ‘22.11월에 UBS는 세계 최초로 분장원장기술에 기반한 네이티브 디지털 채권을 발행하여 SIX와 SDX에 상장했고, ‘23.1월에 스위스 루가노시(the cith of Lugano)는 SDX에 네이티브 디지털 채권을 상장
 - SDX의 거래시스템은 경매모형을 적용 중이며, ‘22년에 SDX Web3 서비스를 출범하여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및 셀프스테이킹(self custodial staking)* 서비스를 제공
 - * 제3자가 제공하는 수탁을 통한 스테이킹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검증자(validator)를 선택하여 위탁하거나 자신이 검증자(validator)로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작업증명에 참여
 - SDX는 ‘22년에 일본 SBI와의 조인트벤처사인 디지털자산거래소 AsiaNext를 싱가포르에 설립했고, ‘23년에 싱가포르감독청(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)으로부터 Recognised Market Operator 자격을 획득
- (CBOE) 시카고옵션거래소(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, CBOE)는 ‘22.5월에 Eris Digital Holdings, LLC(ErisX)를 인수하여 디지털자산 시장에 진입 후 서비스 확대를 진행 중
 - CBOE는 ErisX의 인수를 통해 미국 기반의 디지털자산 현물시장 및 선물거래, 청산 결제사업을 시작했고,
 -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, 지수 산출, 새로운 파생상품 개발 등의 서비스를 준비 중
- (Nasdaq) 나스닥(Nasdaq U.S)은 글로벌시장에서 선도적인 디지털자산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포지셔닝을 목표로 기술역량을 축적 중이며, ‘23년에 시행을 계획했던 암호화화폐 수탁사업은 현재 중지된 상황
- (JPX) 일본거래소(Japan Exchange Group, JPX)는 ‘25.4월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증권토큰을 거래하는 디지털증권시장(Digital Securities Market)을 출범하는 중기 전략을 발표했고, ‘25년 이전에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
- '22.2월에는 일본의 암호화자산 거래소인 디지털자산시장(Digital Asset Markets, Inc.)*에 23.7%의 지분을 획득
 - * 금가격에 연동된 암호화자산인 Zipangcoin(Mitsui & Co.의 자회사 Mitsui & Co. Digital Commodities가 발행)을 거래
 - (LuxSE) 룩셈부르크증권거래소(Luxembourg Stock Exchange, LuxSE)는 '22.1월 부터 증권토큰을 Securities Official List(SOL)에 등록하는 것을 허용함
 - 적격 발행자는 분산원장에 증권토큰을 발행하게 되며, 아직 아직 정규시장이나 Euro MTF 시장에서의 거래는 허용되지 않고 있음
 - (SantiagoX) 칠레의 산티아고증권거래소(Bolsa de Santiago)는 허가형 전용 분산원장 (permissioned distributed ledger)*을 활용한 증권대출 플랫폼을 운영
 - * 블록체인인 노드는 브로커, 기관고객, 규제기관, 거래소이며, 대출 및 공매거래를 대략 4분만(기존 4일 소요)에 기록

[주요 기사 리스트]

12월 1주 ~ 12월 4주

주식, 증권상품

-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투자자가 위험자산에 몰리면서 글로벌 증시는 3년 만에 큰 상승폭을 보여(Financial Times, 12/1)
- HKEX, 아시아 최초의 사우디아라비아 투자 ETF를 상장해(Financial Times, 12/6)
- T+1 결제주기 전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서, 결제 실패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해(Markets Media, 12/1)
- 패시브 배당주 펀드가 소형주 및 가치주에 비중을 두면서 액티브에 비해 성과가 부진해(Financial Times, 12/8)
- 커버드 콜 ETF에 대한 인기 급상승으로 시장 변동성이 축소(Financial Times, 12/12)
- 고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하이일드채권 ETF의 유입이 크게 증가해(Financial Times, 12/12)
- 중국 증시의 부진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'24년 투자처로 경기 침체에 강한 기업이나 글로벌 영향력을 가진 기업에 주목하고 있어(Reuters, 12/12)
- SFC, 중국-홍콩 간 ETF 교차매매의 강력한 성장으로 홍콩 상장 ETF의 순유입이 크게 증가해(Financial Times, 12/15)

- 글로벌 IPO시장의 올해 거래량은 증가한 반면 거래 규모는 줄어들었으며, '24년에는 이자율 인하 기대로 IPO가 늘어날 전망이나 기업의 철저한 준비 및 적정 가격 설정이 필요할 것(EY, 12/14)
- 英 FCA, 영국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IPO 규정을 단순화할 계획을 밝혀(Bloomberg, 12/20)
- FRB의 금리정책 변화, 달러 약세 및 관광업 경기 회복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 회복을 견인하고 있어(BNN Bloomberg, 12/21)
- 유럽의 ETF 시장은 높은 자금유입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, 뮤추얼 펀드와 같은 전통적인 펀드 산업에서는 유출을 보이고 있어(Financial Times, 12/21)
- 영국 주식시장에서 자금유입의 감소, 기업의 해외 이전 및 소형주 상장 폐지 증가로 투자자에게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이고 있어(Financial Times, 12/26)
- 英, T+1 결제주기 전환시점 및 전환방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해(THE TRADE, 12/19)
- 아시아 개인투자자의 미국 상장주식 매매가 급증하면서, 美 증시에서 24시간 소매시장 확장(Financial Times, 12/27)

파생상품

- SIX, 유럽 내 스와프 청산을 강제하는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유로 스와프 청산에 관심을 보여(FOW, 12/1)
- Eurex의 EuroStoxx50 지수를 기반으로 한 제로데이옵션 계약이 유럽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(FOW, 11/30)

- 헤지펀드가 제로데이옵션의 잠재적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한도를 추가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(Risk, 12/6)
- 대두 파생상품시장은 채식주의 식단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향후 10년 내에 2배로 성장할 전망(FOW,12/4)
- 제로데이옵션 거래의 급증에 대한 영향으로 옵션시장은 기록적인 거래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(WSJ, 12/10)
- LME, 니켈시장이 폐쇄 이전 수준으로 거래량을 회복했으며 다른 금속시장에서도 거래량 증가(FOW, 12/11)
- 말레이시아파생상품거래소는 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외국환선물을 출시할 예정(FOW, 12/8)
- TFX, TONA(Tokyo Overnight Average Rate)선물 활성화를 위해 협의대량거래 최소신청수량요건을 폐지(FOW, 12/12)
- 중국 본토 기관의 딴섬본드(역외위안화표시채권) 투자가 급증하면서 역외금리옵션 거래량이 급증(Risk, 12/7)
- EFET, 유럽의 가스가격 상한제 연장이 기존 계약을 위험에 빠트리며 가스 접근성을 낮출 것이라고 우려 제기(FOW, 12/13)
- CME, 단기금리 리스크 헤지를 위한 SOFR 파생상품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미결제약정이 기록을 경신해(FOW, 12/14)
- CFTC, FCM(Futures Commission Merchants)의 수가 감소하면서 금융기관의 파산에 의한 고객 포지션 이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해(Risk, 12/13)
- 美 뮤추얼펀드가 국채선물에 대한 포지션을 증가시켜 과도한 레버리지를 노출하면서, 시장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돼(Risk, 12/19)

- CBOE, 美 옵션시장의 거래량 기록 경신을 예상하면서 '24년 초 러셀 2000 지수옵션을 출시할 예정(FOW, 12/22)
- 美 뮤추얼펀드는 라틴아메리카의 FX 옵션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임(Risk, 12/21)

가상자산, 디지털

- 디지털파운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영란은행과 재무부는 금융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해결해야 해(Financial Times, 12/2)
- SEC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로 비트코인이 예상치 못한 봄을 맞이해(Financial Times, 12/8)
- 투기 및 개인투자자 수요가 견재한 아시아시장, 가상화폐시장의 부활에 기름을 부어(Financial Times, 12/8)
- 英, 금융시장에서 디지털자산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증권 샌드박스 규제를 시행할 것(THE BLOCK, 12/18)
- Deribit, 암호화폐 파생상품 미결제약정이 기록을 경신해(FOW, 12/14)
- CFTC에서 비트노미얼의 미국 내 청산소 등록을 승인했으나, 금융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의견이 충돌하고 있어(FOW, 12/19)
- 비트코인 채굴업체, 검열 수준의 규제 받을 수 있어(THE BLOCK, 12/26)
- 비트코인업계, 홍콩이 미국 다음 가상화폐 ETF 허브가 될 것이라 예상(THE BLOCK, 12/25)
- 나이지리아 중앙은행, 암호화폐 거래금지 조치를 철회했으나 관련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(Reuters, 12/23)

청산·결제

- LSE, 거래량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형주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의 거래 중단이 발생하는 문제에 직면(Financial Times, 12/5)
- Abaxx,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황산니켈 선물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의 거래 및 청산을 승인받아(FOW, 12/7)
- DTCC, SEC가 현금 및 레포 청산 의무화 규제를 승인하면서 고객에게 청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있어(FOW, 12/14)
- 글로벌 금융감독당국은 거래소 및 청산소에 운영리스크 관리를 개선하도록 요구해(Risk, 12/18)

지수

- HKEX, MSCI를 기반으로 한 주가지수 상품의 미결제약정이 기록을 경신해(FOW, 12/1)
- Fed가 내년 상반기 금리를 낮출 것으로 기대하면서 VIX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(Financial Times, 12/1)

ESG

- 反ESG의 영향으로 ESG에 대한 투자를 기존의 사회적 책임 중심 투자에서 수익 중심의 투자로 접근 방식을 변경하고 있어(Financial Times, 12/4)
- 투자자는 지속 가능한 투자의 그린워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정보 공개와 규제 강화 및 정치적 조치를 요구(Financial Times, 11/30)
- IOSCO, 지속가능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그린워싱 방지 및 탄소시장 발전을 위한 지침을 발표(FOW, 12/4)
- EPTA, 그린 주식 및 채권과 관련된 파생상품은 유럽 규제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권고(FOW, 12/14)
- ESG 투자자는 日 증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친환경 기업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지 않아(Financial Times, 12/15)
- 美 다국적기업은 유럽의 CSRD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, 보고 범위 및 보고 형식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을 내리고 있어(CFO, 12/15)
- 월가, 바젤Ⅲ 엔드게임 규제의 도입으로 美 금융기관의 자본요구량이 늘면서 기후금융에 대한 자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해(Bloomberg, 12/17)
- 유럽 은행규제당국, 기후변화를 기존 리스크 요인에 통합할 것을 제안(Risk, 12/21)
- 프랑스 규제에 따라 유럽의 ESG 펀드는 석유 및 석탄 분야의 투자를 포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(Financial Times, 12/27)

탄소

- EPA, 메탄 배출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재평가해 기후 규제를 강화할 것(THE HILL, 12/5)
- 민간 기업과 개발도상국 간의 탄소배출권 거래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(Financial Times, 12/6)
- COP28 기후정상회의 이후, 은행은 탄소배출권시장의 거래량 증가를 예상하며 거래 중 일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(Bloomberg, 12/10)
- 표준화된 글로벌 탄소가격 부재로 자체 탄소가격을 이용하는 기업 늘어(Reuters, 12/12)
- 미국의 탈탄소화 노력은 복잡한 지방 및 정부 규제와 허가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(Financial Times, 12/13)

글로벌 시장

- 투자자가 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면서,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어(BNN Bloomberg, 12/5)
- 美 대형은행 CEO, 바젤III 엔드게임 제안에 따른 은행의 자본요구량을 증가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 우려해(Bloomberg, 12/6)
- 무디스, 지속적인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부동산 부문의 위기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해(Financial Times, 12/5)

- 헤지펀드가 유사한 거래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규제당국 및 투자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(Bloomberg, 11/30)
- 인도 경제에 대한 낙관론의 지속으로 NSE의 시가총액이 상승하면서, 홍콩 증시를 제치고 세계 7위 시장으로 올라설 전망(Financial Times, 12/10)
- Banxico가 TIE에서 F-TIE로의 전환에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으며, 장내와 장외 거래 간의 베이시스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 언급(Risk, 12/12)
- 개인투자자의 과도한 투기 욕구로 인도의 파생상품시장이 급등하면서 규제당국의 우려가 높아져(Bloomberg, 12/12)
- 美 패시브펀드 투자의 급격한 증가는 비미국 공기업의 미국 내 거래소 상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어(Financial Times, 12/18)
- FSOC, AI를 금융시장의 취약점으로 지목했으며 AI의 증가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(Financial Times, 12/15)
- 적자를 메우기 위한 美 정부의 국채 발행량 증가로 SOFR 금리가 오르면서 내년 단기자금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(Financial Times, 12/20)
- Euribor에서 €STR로 대체되었으나 €STR에 대한 적은 수용과 제한된 전환으로 불만 존재(Risk, 12/15)
- SOFR와 미 연준 Repo 금리 격차 확대로 금융시장의 긴장도 증가(Financial Times, 12/20)
- 글로벌 증시는 상승세이며, 달리는 5개월 만에 최저치 유지(Reuters, 12/27)
- 중국 위안화는 국제 결제수단으로서 점차 입지를 강화하고 있음(WSJ, 12/26)
- 2024년 美 금융시장은 완화된 통화정책과 양적 긴축으로 금리 변동성이 늘어날 전망(FOW, 12/21)

글로벌 규제

- CFTC, 투명성을 높이고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배출권 파생상품 계약 거래에 대한 규제를 제안(Financial Times, 12/4)
- FCM, CCP가 파생상품 포지션이 시장 규모를 초과하면 부과되는 추가적인 증거금에 대한 불투명한 증거금 산정방식에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어(Risk, 11/30)
- Euro RFR 그룹은 €STR로의 전환으로 폐쇄했으나, 대안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(Risk, 12/4)
- 유로스왑의 일부를 역내 청산토록 하는 Emir 개정안에 대한 업계 불만 고조(Risk, 12/7)
- SEC, 고객최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문계약 상 의무 중재에 대한 임시 금지 요청(Financial Advisor, 12/8)
- FCA의 CEO, 금융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대신 기업에서 AI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(Reuters, 12/12)
- 주요 은행 경영진은 바젤Ⅲ 엔드게임 규제로 인해 파생상품 청산 기업이 위협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우려 제기(FOW, 12/12)
- 英 FCA, 브렉시트 이후 실시한 임시허가규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80개의 기업은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(Financial Times, 12/17)
- SFC, 포지션 제한 완화 결정을 확정해(FOW, 12/19)
- ESMA, '지속가능성' 및 '전환'을 사용하는 펀드의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펀드에 대한 일련의 지침과 요구 사항을 발표해(Investment & Pensions Europe, 12/19)

-
- 英 FCA, 브렉시트 이후 파생상품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자율스왑을 포함한 유동적인 장외파생상품에 대해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제를 도입할 것(FOW, 12/20)
 - 영국이 유럽의 CDS 시장에 대한 투명성 의무 확대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공정한 경쟁이 우려돼(Risk, 12/15)
 - 인도은행의 FRTB 내부모형 적용은 국내 은행이 외국 지점보다 더 높은 자본비용을 부담하게 해 경쟁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어(Risk, 12/20)
 - 회계감사보고서의 신뢰성 및 주요성에 대한 논쟁을 SEC가 조사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(WSJ, 12/21)
 -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최종 신청기한을 발표하면서, 내년 초 출시를 승인할 것으로 보여(Reuters, 12/23)
 - SEC, '공인투자자' 정의 확대를 위한 의견 모색(Financial Advisor IQ, 12/21)
 - 美 재무부, 투자자문사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에 대한 규제를 발표할 것(FINANCIAL ADVISOR IQ, 12/20)
 - CSRC, KYC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관련 규정의 역외 적용범위를 확대할 듯(Risk, 12/26)
 - 글로벌 금융규제기관, 그림자금융 전반의 드러나지 않은 레버리지 해결을 우선순위에 둘 것(Reuters, 12/21)
 - SEC, 지난 5월 채택한 자사주 매입에 관한 규제 개편을 재검토할 가능성 높음(Bloomberg Law, 21/21)